

*** 전시디자인의 공간분화와 전시체계에 관한 연구

- 박물관 환경디자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5) -

A Study on the Spatial Differentiation and Schematic Hierarchy of Exhibition Design

- A Basic Study on the Environmental Design of Museum(5) -

임채진* / Lim, Che-Jin

황미영** / Hwang, Mee-Young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various spatial structures of the Seoul city museum with reference to the layouts and the qualitative mode of exhibition items. Understanding the way of actual exhibition design can be a clue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exhibition story which guarantees to make the pertinent space and visitors route organization between different levels of architectural space and exhibition space.

The basic methodological idea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Systematic analys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exhibits, historic context, and hierachy of each thematic zone.
- 2) Analysis of physical combination of object spatial cell in the view of visitors circulation.

As an actual example, History zone(1F), Life and Culture zone(2F), City zone(2F) in the museum are analyzed and examined

키워드 : 전시디자인, 박물관, 리모델링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박물관은 사람-공간의 관계 뿐 만 아니라 공간-유물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종류의 공간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건축과 사물(유물)은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계획되어진 전시라 해도 유물(작품)이 가지는 다양한 내재적인 환경조건으로 인해 공간과의 심한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건축에 필요한 공간-유물(작품)의 동질성을 위해서는, 공간-지각심리라는 관점에서 관람객의 인지 능력을 강화시키고 합리적인 순로계획(동선계획)을 필요로 한다.

공간의 구조와 그 형태에 따른 관람객의 움직임은 시지각적 이해의 순서에 따라 행동이 수반되므로, 시각반응에 주로 의존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지각과 행동이 거의 동질성을 가져야 하는 현상이며, 일정한 '공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점을 박물관 공간

구조라는 문맥에서 바꾸어 생각해 보면 박물관은 언제나 적절한 양의 '관람(task)'을 가능케 하고 만족감을 제공해야 하므로, 관람객의 효율적인 유인과 유물(작품)의 배열, 공간적 순로, 동선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공간적 수단을 통해 관람객의 예상되는 '지적충돌'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공간해결의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의 내용을 보는 대상은 그 대부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박물관을 이용하고 있는 자유인이다. 박물관의 전시에서 이 폭 넓은 자유인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와 해답을 파악시키기는 극히 난해한 문제이다.

이들의 내용은 실로 복잡해서 고도의 지식과 흥미를 갖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전시물과 결부되어 스스로 해설하고 비유하기도 하며 전시물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일반대중은 대체로 자력으로는 전시물과 결부하려 하지 않으며 스스로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면 흥미를 유발하지도 않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형식적 해설판이 붙어있는 정도로는 다양하게 계층화된 현대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는 어려우므로, 현대 박물관의 건축과 전시에서 다양한 전시 매체의 개발과 함께 순회형 코스와 선택형코스, 중점관람코스, 학습형코스 등의 다중적인 성격의 코스(동

* 이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디자인학박사

** 정희원,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선)의 조합과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시와 건축의 경우는 특히 공간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므로 건축계획상의 기본개념과 전시의 의미와 디자인의 기본개념이 통합될 수 있어야 하고 구조 및 공간적 모듈과 전시계획을 위한 모듈이 최대한의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는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존의 다수의 연구에서 박물관 건축과 전시의 건립수준을 <선(先)전시 / 후(後)건축>의 형식으로 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필자의 경우도 이를 가장 합리적인 계획수준의 모델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의 대다수의 박물관, 미술관의 건립은 일부를 제외하고는²⁾ 이와 같은 건립모델에 의한 건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컬렉션의 지속적인 수집과 전시성격의 수립, 차별화, 전시매체의 선택과 시나리오의 방향설정에 선행하여 건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의 공간과 전시의 체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역사계 박물관의 건축 및 전시공간을 사례로 하여 전시 공간의 구조적 체계와 전시내용(시나리오 및 배치), 순회형식과 동선 조건과의 관계를 파악, 해석하여 이를 향후의 전시 Remodeling에 적용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연구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 조사 방법 및 분석사례의 개요

본 연구는 박물관 전시공간의 시지각적 동선을 분석한 논문^{2)제3)}과 전시의 의미론적 기법의 접근문제를 다룬 논문⁴⁾ 및 자료의 전시 체계와 기본구상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다룬 사례연구⁵⁾, 유물의 수장화 과정과 공간특성에 관한 각론적 연구⁶⁾, 박물관의 보존기능과 전시장치로서의 쇼케이스 시스템의 환경조건과 설치지침에 관한 연구⁷⁾, Kevin Lynch의 도시이론을 적용한 실내경관이미지와 시동선 환경에 관한 논문⁸⁾, 단위전시 공간의 단면형태와 전시의 환경조건을

다룬 논문⁹⁾, 전시의 순회형식과 동선의 이동을 관람속도와 형태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¹⁰⁾에 이어 뮤지엄의 건축 공간과 전시디자인 계획에 의해 분화된 전시공간군(群)의 동선, 전시내용, 공간 구조등을 분석하여 이를 전시공간의 재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지침(guide line)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연구에 해당된다.

또한 본 연구는 1998년도에 최종전시계획이 수립된 서울시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여 이 전시계획에 포함된 전시의 조닝, 시나리오 체계, 연출매체, 부스계획, 재조정된 동선순로계획, 레프리카 제작 시방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전체적인 공간체계와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이다.

서울시립박물관은 총 5879평, 지상2층 지하1층의 규모로서, 1995년에 착공하여 1998년에 건축부분이 준공되었으며, 1999년 7월 현재 전시 부분의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2000년경에 전시공사가 완료되어 개관할 예정으로 있다. 본 박물관의 성격, 개념설정 및 기본계획은 <경희궁 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1986>, <서울시립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위한 프로그램연구, 1986>, <서울시립박물관, 미술관 설계계획, 1988>, <서울시립박물관, 미술관 전시설계, 1988>, <서울시립박물관, 미술관 설계보고, 1988>, <서울시립박물관(가칭)전시기본계획, 1995>, <서울시립박물관 실시설계 최종보고, 1998>의 보고서 및 기본설계도면에 의해 작성되어 온 것이다.

다만, 본 박물관의 성격수립에 대해서는 1986년도에 미술관, 박물관 즉 역사계와 미술계의 혼합개념¹¹⁾으로 출발하여 역사 박물관의 성격과 미술전시실(상설 및 기획)부문이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으나 1995년의 착공시점에 즈음하여 최종적으로 역사계박물관의 성격으로 수정, 보완이 가해지게 되었다.

또한, 1995년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처음으로 City Museum(도시사 박물관)의 개념적 성격론이 공문화되어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박물관개관 준비위원회가 설치되어 월 1회 이상의 소위원회회를 개최하고 1998년 10월에 최종적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형태적 틀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의 7개 보고서 및 각계 위원회의 의견수렴 단계에서 논의된 자료들을 참고 검토하여 분석한 것이다.

3. 건축설계의 공간조건

<그림 2>는 전시 및 실내동선구성 및 배치평면도로서 1995년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편의상 이를 <기준안>으로 칭한다.

또한 <그림 3>는 1998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 계획된 전시설계안으로 이를 <최종안>으로 칭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1) 박물관의 주요동선은 ① 관객주요동선(By pass동선), ② 순회형동선(심층 관람 혹은 학습형 동선), ③ 중점코스동선(중요전시품 관람코스), ④ 관리동선을 들 수 있다. (임채진 외, MED.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환경 개발연구원, 1997.12)

2)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문화체육부, 1995.10
정보통신박물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정보통신부, 1995.9
국립자연사박물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문화체육부, 1996.11

3) 임채진, 이정미, 전시공간의 이동체험을 통한 움직임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5호, 1995
임채진, 신미경, 박물관 순회형식과 관람동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5호, 1995

4) 임채진, 오선애, Muscografia를 이용한 조각전시 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5호, 1995

5) 임채진, 김종훈, 이공계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5호, 1997.

6) 임채진, 천혜선, 박물관 환경디자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1),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2호, 19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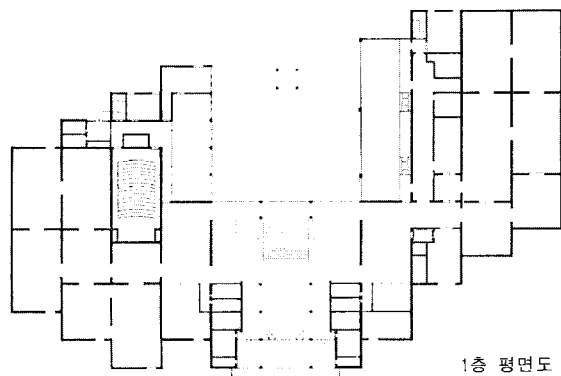
7) 임채진, 정은화, 박물관 환경디자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2),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12

8) 임채진, 차소란, 시동선 환경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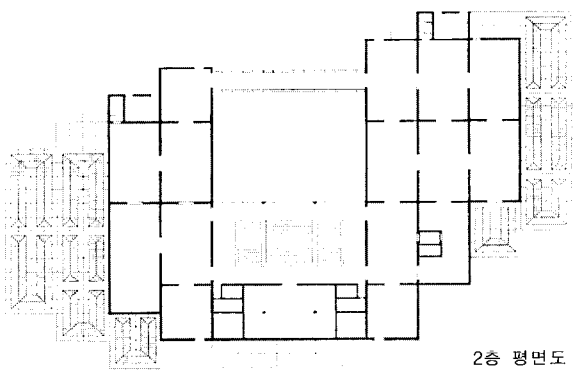
9) 임채진, 하미정, 단위전시공간의 단면형태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5호, 1998.9

10) 임채진, 박종래, 전시동선의 이동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호, 1998.12

11) 실제적으로 전시의 개념과 규모상으로는 미술관의 성격이 우선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그림 1> 서울시립박물관 건축 평면도 (기준안)

건축설계 부분의 공간조건의 개요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95년에 착공하여 98년에 건축준공된 건축공사상의 공간배치는 그간 여러차례의 변경과정을 거쳐 현재상태로 조정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보면 최초의 기본방향이 박물관/미술관의 이중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된 까닭에, 1995년도의 도시사 박물관과 같은 단일한 성격으로 조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건축프로그램과 전시기본계획의 내용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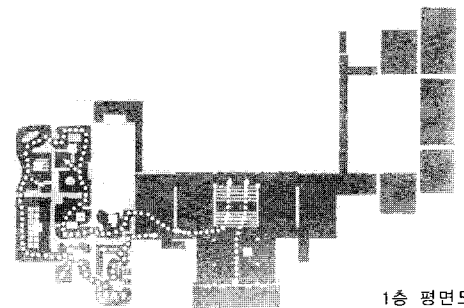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재의 공간설계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건축공사상의 공간조건과 기존 기본계획안의 내용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가 심각하여, 실제로 새로운 전시기본계획<최종안>을 전시연출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조정해가기 위해서는 명백한 분석의 기준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로비홀: 1층 중앙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중앙계단은 주요공간의 하나일 수 있는 중앙홀의 공간전시를 어렵게 하고, 1층 전시장을 되돌아 나올 때 그 밑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 동선상으로나 미관상으로 부적합한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시공간 전체가 일률적인 중성적 모듈화로 이루어져 있어 획일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주제 및 전시내용의 특성에 따른 공간연출상의 차별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건축 구조상 동선상의 중복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바,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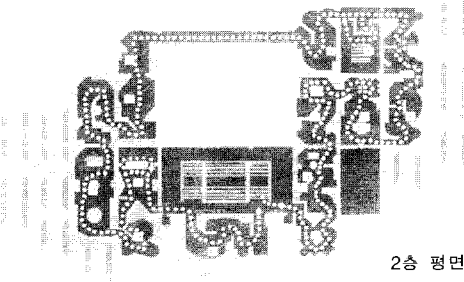
범례

1. 중앙홀
7. 서울의 교통, 통신
8. 서울의 교통, 통신
9. 거대도시 서울
20. 거대도시 서울
21. 서울첨부전시실
22. 서울첨부전시실
23. 서울첨부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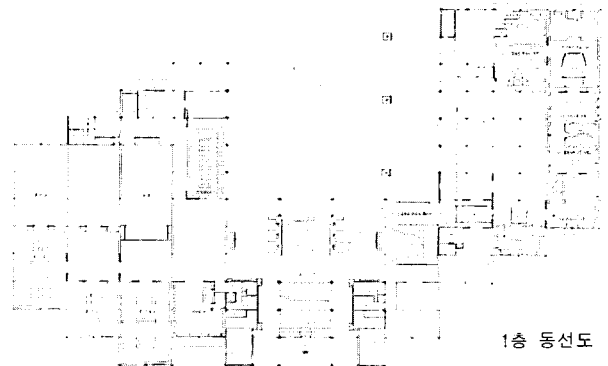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 서울의 자연
3. 정도 이천은 서울
4. 수도만성건설
5. 수도만성 건설
6. 도성민들의 생활과 문화
7. 도성민들의 생활과 문화
8. 전란 자연재해 극복
9. 전란 자연재해 극복
10. 관망의 변형
11. 관망의 변형
12. 관망의 변형
13. 안성부
14. 근대도시 서울의 개화
15. 경성 빼앗긴 서울
16. 경성 빼앗긴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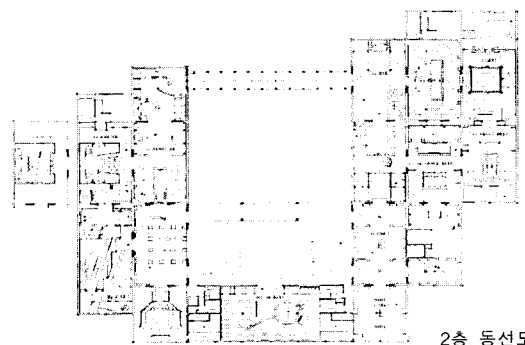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그림 2> 실내동선구성 및 배치 평면도 (기준안)



1층 동선도



2층 동선도

<그림 3> 전시 배치 및 동선도 (최종안)

-우측전시장의 경우에는 출구로부터 1층 홀로 나오는 동안 약 60미터를 전시물 없이 좁은 복도와 통로를 지나도록 되어 있어 관객으로 하여금 크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2층전시실

로 올라갈 경우 계단을 걷는 길이를 포함하여 약 100여미터의 거리를 지나쳐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 전시공간의 중첩배치(2중 또는 3중)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동선상의 피로 및 정위(定位 orientation)지각의 곤란함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¹²⁾

- 현재의 자연채광을 적극 사용하는 조명의 기본방향은 현대적인 분위기의 개방적인 박물관 연출방향에 상당부분 기여하리라고 본다. 단 새로운 연출방식을 위해 필요한 인공조명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연채광 차단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층별 및 기능별 주요기능과 면적

층별	주요기능	면적(평)	비율(%)
전시	전시장	2,028	34.5
	전시로비	556	9.5
	소 계	2,588	44
수장	수장, 반출입, 수리, 공장, 해체, 포장	868	14.8
사무, 교육, 연구	사무실,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873	14.9
기계실	기계, 전시실, 공조실 등	509	8.7
편의시설	카페테리아, 식당, 박물관, 상점, 보관실 등	182	3
기타	공용로비, 복도, 계단, 창고 등	859	14.6
합계		5,879평	100

4. 전시의 분화체계와 동선체계분석

4.1. 1차 계획안(기존안)의 검토¹³⁾

(1) 전시 연출의 기본방향

- <사회 밖의 미술관>에서 <사회속의 미술관>으로, <박제화된 박물관>에서 <일상의 생활체험과 동시대적인 문화과정 속에서 살아 있는 체험의 소통장소로서의 미술관>으로의 전환에 걸맞은 전시 연출이 강조 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분류한 지식 체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방향 전시연출에서, <쌍방향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interactive communication>과 같은 새로운 교육개념이 도입 되고 있다.

- <무엇을> 중심의 전제에서 <어떻게>, <왜>, <누구를 위하여>를 강조하는 전시방향과 전시연출개념이 활용되어 지고 있다.

과거와 같은 <경제적 기능주의 시대>에서 벗어나 <문화민주주의 시대>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와 미래의 전망에

12) 지하에서 1,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유물운반용 엘리베이터가 1층의 경우 전시실 입구 옆의 하역실과 연결되어 있고, 2층의 경우 전시실(25번) 중앙에 문이 나 있어 두 경우 모든 관람 동선을 침범하고 있는 점등을 들 수 있다.

13) 1986년 이후 거듭된 논의 끝에 1995년도에 최종수립된 서울시립박물관의 전시방향은 ① 대중성 지향, ② 주제중심의 기획적 성격과 현대적 전달매체 중심의 전시지향, ③ 체험적 전시형태와 현대 예술적인 표현형식을 적극 응용한 새로운 연출지향의 3가지로 설정되고 있다.

비추어,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것이 관람자의 체험에 미치는 입체적인 수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출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edutainment = education+ entertainment>의 개념이 도입되고 전시의 이벤트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 다만, 전체 전시 주제와 내용이 경박스럽게 느껴지거나 역사적 무게감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전시실의 주제와 내용 및 전시자료의 성격과 비중이 세심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표 2> 전시면적 분할표

전시구분	전시기본단위	전시면적
상설전시	1. 도입부 : 중앙홀	400평
	2. 서울의 자연	503평(유구전시장450평 포함)
	3. 정도이전의 서울	80평
	4. 수도한성부의 건설	240평(준비실포함)
	5. 도성민들의 생활과 문화	160평
	6. 전란 자연재해의 극복	160평
	7. 한양의 변영	213평
	8. 한성부	80평
	9. 서울의 교통, 통신	93평(강당 앞 홀 포함)
	10. 근대도시, 서울의 개화	80평
	11. 경성 빼앗긴 서울	100평
	12. 거대도시 서울	160평
	13. 서울 정보전시실	213평
소계		2482평
기획전시		346평
합계		2828평

층별	주요기능	면적	비고
옥탑	물탱크, 계단탑	39평	옥탑은 면적에서 제외
2층	전기실	1,166평	
중2층	사무실(관리, 연구), 강의실	857평	
1층	전시실, 강당, 휴게실, 수장고	1,696평	
지하층	수장고, 기계실, 전기실, 창고	1,751평	
합계		5,879평	

(2) 전시주제 / 내용과의 상관관계

가. 20미터× 60미터에 달하는 1층의 대단위 로비공간에 도시사 박물관으로서의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활용되어 있다.

- 중앙홀 도입부에 자격루 모형을 서울 도시사박물관(가칭)의 주 상징물로 설치

- 자격루가 놓여 있는 1층 중앙홀 바닥에 [수선전도]와 같은 작품을 부조식으로 연출

- 자연채광 중심의 대형로비공간의 개방성을 깨트리지 않도록 일정한 상징적 내용을 갖는 천장 행거식 연출기법 활용

- 계단옆 벽에 전통문화와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인왕제색도]와 같은 대형 그림을 전시

- 전체적으로 중정의 유구전시장과와의 시각적 연관성 유지

- 중앙홀의 상징물을 계단 및 2층 레벨에서도 관람이 가능한 방식 채택

-세계적인 메가폴리스로서의 서울의 상징성을 나타내면서도 전통 문화와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다층적인 연출방식 채택
나. 36미터 사방의 중정 유구전시장 전체를 1층/2층, 선후좌우의 각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시각화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 있다.

(3) 시대별 전시부문과 분류주제별 전시부문의 연출

전체적 시대별 전시부분의 비중이 분류주제별 전시부분(1.15실)의 비중에 비해 크나, 분류주제별 전시가 시대별 전시부분의 흐름 속에서 효과적인 변화가 부여되어 두 전시부분과의 차별성이 강조되어 전시효과가 제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전시 부분간에 색채/사용 재료/조명/공간상의 특성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4) 전시영역(ZONING) 구성

-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서울 정도의 역사성을 부여 하고 있는 조선시대에 많은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상설전시의 공간적인 안정성과 통일성을 위해 조선시대의 전시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2층에 설정되고 있다.

-정보열람실의 공간이 1층에 설치되고 있다. 이 경우 서울의 현대부분이 1층으로 위치되어 정보열람실과의 연관성이 제고되고, 동시에 기획전시와의 연관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런 경우 기존의 건축구조상 2층 전시구역 내에서의 동선은 좋으나, 1층 동선에서 중북(상설전시실 본 후) 기획전으로 이동 시 약 60여미터의 중앙홀을 횡단할 필요가 생김) 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채로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앙홀 가운데 대형계단이 배치된 채 좌우로 분리된 전시공간배치 방식을 채택한 기존의 건축설계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해결될 방도가 없다고 판단된다.

(5) 동선체계

가. 전체동선

-초기안의 전체동선계획은 박물관 진입부의 흐름이 감안되어 계단을 통해 2층 우측전시장에서 시작되고 있다. 서울 도시사 박물관(가칭)의 중심축이 조선시대에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선시대 전체를 쉽게 연관시킬 수 있는 공간의 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설전시의 도입부를 수장고가 전시실 가운데 놓여 있는 1층 우측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의 건축설계상 관객은 1층 좌측 전시장이나 2층 전시실로 옮기는데 최소한 200여 미터를 움직여야 하는 낭비적인 동선이 연출되어 관람객은 도입부에서 이미 심각한 피로현상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조선시대의 전시공간이 8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전시공간으로 분할될 뿐만 아니라 서울정보실이 2층에 배정되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세부동선

-기존의 건축설계상으로는 전체 전시실이 일률적인 격자형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실의 모든 출구가 중앙으로 설정되어 있는 까닭에 효율적인 동선을 유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일률적인

입출구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관람객에게 다양한 변화감보다는 획일화된 느낌을 주기 쉽다.

-많은 전시장을 관람하는데서 올 수 있는 관람객의 피로현상이 극대화되고 선택동선과 적절한 휴게실이 미흡하다.

4.2. 2차 계획안(최종안)의 검토

1995년도의 전시기본계획(기존안)은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96년 10월에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박물관의 성격과 전시주제, 실별 전시연출의 방침, 시대·분류 주제별 전시방법 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시영역과 동선체계 및 세부주제에 있어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전시의 규모면에서는 2,322평(유구포함 2,828평)이던 '상설+기획' 전시부분이 최종안에서는 2,495평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상설전시 21실, 기획전시 6실을 포함하여 계27실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비교적 큰 단위 전시실이 부스형태로 세 분류되어 이중 전시품에 의한 총 점유면적(순수전시면적)이 30%(573)평에 이르며, 관람순로의 폭을 약 2.5m 정도로 가정했을 경우의 동선면적이 전시면적의 약5%(1265평)정도를 차지하므로 전시규모에 비해 전시 밀도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시면적 분석

구분	면적	순수 전시 면적	동선면적	휴게 및 서비스 면적	동선길이
중앙홀 1	501평	38평	407평	56평	205M
역사관	291평	97평	190평	4평	320M
생활문화관	464평	215평	249평	-	580M
도시관	297평	143평	152평	2평	550M
중앙홀 2	378평	80평	267평	31평	530M
총 계	1,931평	573평	1,265평	93평	2,185M
면적비율	100%	30%	65%	5%	m

(1) 전시주제/내용과의 상관관계

-기존안과 달라진 로비부의 특징은 로비와 오리엔테이션 갤러리가 분화되어 이들이 중앙홀 전체의 기능을 양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의 시작이 2층으로 계획되었던 기존안에서 1층 우측 윙(wing)으로 전시입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생성된 정위(定位)공간의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안의 자격부 모형과 수선전도는 조선정조대의 성시전도의 재 현품으로 대체되며, IDS패널과 CCTV, 중앙계단의 상징조형물, 서울 정보검색코너등이 설치되고 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갤러리는 상설전시실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서울의 자연환경과 상설전시의 안내 영상으로 구성된다.

-기존안에서는 중정유구 전시장을 각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시각화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되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중앙홀과 2층의 연결 브리지에서만 유구가 조망가능하므로, 실제적인 전시 계획에 있어 유구와의 시각적 연계는 반감되고 마는 결과가 된다.

<표 4> 시설면적현황

전시관	건축면적	전시면적	비고
총계	27실 2,623평	27실 2,495평	
상설 전시장			
소 계	21실 1,525평	21실 1,430평	
역사관	5실 332평	5실 291평	
생활문화관	6실 488평	6실 464평	
도시관			
영상실	6실 439평	6실 420평	
기증실 I IIIIV	3실 171평	3실 164평	
정보실	1실 95평	1실 91평	
전시 관련 시설			
소 계	실 1,098평	6실 1,065평	
전시기획실	6실 425평 (전실 39평 포함)	6실 419평 (전실 39평 포함)	
중앙홀	501평	501평	
2층 로비	145평	145평	

(2) 전시영역 (zoning) 구성

기존안의 전시기본단위는 중앙홀, 서울정보전시실외에 상설정시를 8구분하여, <서울의 자연 →정도이전의 서울 →수도한성부건설→ 도성민들의 생활과 문화 → 전란, 자연재해의 극복 →한양의 변영 →한성부 → 서울의 교통, 통신 →근대도시, 서울의 개화 →경성, 빼앗긴 서울 →거대도시 서울>의 대단위 zone별 구성을 시대/분류주제와 결부시킨 단위구성을 취하고, 전시의 규모도 80평, 100평, 160평, 210평, 400평 정도의 흐름속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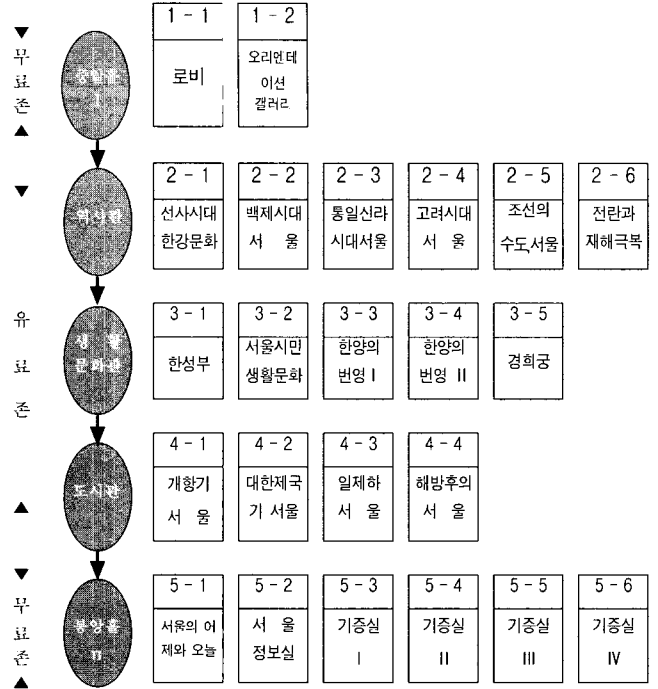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1층과 2층의 중앙홀 전시외의 상설전시를 <1. 역사관>, <2. 생활 문화관>, <3. 도시관>의 3분야로 크게 대별하여 이를 각각 메스별로 <1. 1층 우측부>→<2. 2층 우측부>→<2층 연결브리지>→<3. 2층 좌측부>와 같이 구분하여, 건축의 윙(wing)별로 각각의 대분류 주제를 가지되 사적(史的)전개가 가능하고 독립된 전시군(群)을 이루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각 전시관의 구분은, <역사관>은 서울의 역사를 통사적

<표 5> 전시면적 분할표

전시구분	전시기본단위	전시면적		
상설전시	1. 도입부 : 중앙홀	400평		
	2. 서울의 자연	503평(유규전시장450평 포함)		
	3. 정도이전의 서울	80평		
	4. 수도한성부의 건설	240평(준비실포함)		
	5. 도성민들의 생활과 문화	160평		
	6. 전란 자연재해의 극복	160평		
	7. 한양의 변영	213평		
	8. 한성부	80평		
	9. 서울의 교통, 통신	93평(강당 앞 홀 포함)		
	10. 근대도시, 서울의 개화	80평		
	11. 경성 빼앗긴 서울	100평		
	12. 거대도시 서울	160평		
	13. 서울 정보전시실	213평		
소계		2482평		
기획전시		346평		
합계		2828평		

층별	주요기능	면적	비고
옥탑	물탱크, 계단탑	39평	옥탑은 면적에서 제외
2층	전기실	1,166평	
중2층	사무실(관리, 연구), 강의실	857평	
1층	전시실, 강당, 휴게실, 수장고	1,696평	
지하층	수장고, 기계실, 전기실, 창고	1,751평	
합계		5,879평	



<그림 4> 최종안의 전시 스토리라인

<표 6> 전시연출시나리오 (7' 존안 일부-수도한성건설 4실)

대상	내용	방법	전시연출
남경시대의 한강	가. 전시실 개요	설명	가100 전시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준다
	나. 정도 이전 서울의 행정단위 변천사	대형 모니터	나100 고려문중,수증시의남경천도론을 컴퓨터로 도해하고, 조선조의지형, 현재의 지형과 비교 되도록 한다
	다. 고려사 지리지	실물,탁본,설명	다100 고려사 지리지 남경 유수관조전문, 문중사 기록 원본이나 사본을 전시하고 벽에는 승가사의 마애여래좌상을 탁본하여 패널로 제시한다.
정도과정 파노라마와 도성 전경	라. 한양 천도설	설명,회화	라100 공민와 부부 초상화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모사본을 제작하여 전시한다.
	마. 한양 정도과정	설명	리200 고려말의 한양연혁과 한양 천도시도를 정리하면서 한양천도설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해 보여준다.
	바. 도성설계도	회화	리300 남경의 지리적 모형을 전시하고 모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새 도성의 설계	가. 한양 정도과정	설명,실물	마100 조선 태조, 태종의 한양천도의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천도과정을 설명한다.
	나. 도성설계도	설명,실물	미200 한양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중요한 장면 6제를 파노라마식 변화로 그려 한양 천도의 신고를 실감하게 한다.
	다. 도성설계도	설명,회화,설명	미300 태조, 태종 시 서울이 수도로 택정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화령부와 개경의 호적을 실물로 전시하고, 그 내용과 의의를 소개한다. 비100 조선초기의 치밀한 도시계획하에 세워진 새 도성의 설계도를 그려 전시하고, 출발기 서울의 형성과정과 모습을 설명해준다
			비200 한양도시설계의 특징을 서양과 동양의 차원, 한국과 일본의 대비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 이해시키고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주는 회화작품도 같이 제시한다.

로 개관(概觀)하고, <생활문화관>은 도성민의 생활과 문화를 분류 주제별 관점에서 조망하되 시대별 전시가 가미되고 있으며, <도시관>은 서울의 근대와 미래까지를 도시사적(都市史的)관점에서 통사(通史)화 하되 테마 분류전시가 병행되도록 되어 있다.

-최종안의 내용이 서울정도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안과 같이 조선시대에 많은 비중이 부여되어 이 영역이 2층의 우측영역에서 <생활문화관>으로 보완,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중앙홀 2층 부분에 서울정보실이 확대개편된 것은 초기의 오리엔테이션 기능과 전시말미의 스터디룸(study room)기능을 부가하여, 전시의 도입과, 종료시에 적절한 선택적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지고 있다.

-기존안에서는 1 층 동선에서 중복(상설→기획으로 이동시의60m 횡단로 발생)이 발생하는 문제는 역사관의 말미(2-6실 전관과 재해의 극복)에서 신설된 2층 연결계단에 의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동선체계와 전시체계

가. 선체동선

-중정부부분의 시공시 유구가 발견됨에 따른 설계변경¹⁴⁾에서 1층의 북서측 윙(wing)이 제거되고 2층만 브릿지형태의 통로로 연결되어, 1층의 전시공간은 리턴형의 공간체계를 이루나 2층은 브릿지에 의해 순환형(one-way형식)으로 구성된 점에 의해, 결과적으로 1,2층의 순로구성자체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이 전시 배치상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1층에서 우측윙(wing)의 중정축이 수장고로 배치되어 로비를 제외한 1층 전시의 어느 곳에서도 유구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각적 장소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전시 순로구성이 로비→(1층 우측역사관→2층 계단→2층 우측 생활문화관→연결 브릿지→2층 좌측도시관→2층 중앙 홀, 서울정보실→2층 우측 기증실 I, II, III→중앙계단→1층 로비로 연결되어 있는 바, 역사관, 생활문화관, 도시관의 주요상설 zone 3구역이 완전한 강제동선 순로상에 배치되어 관람객이 이 3개의 zone(관)을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또한, 취향에 맞는 전시를 골라서 관람하며 통과할 수 있는 바이패스(by pass)동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시관만을 관람할 목적의 방문객은 2층으로 진입 할 경우 도시관의 시나리오 배열과 역행하여 마지막 zone인 4-4. 해방후의 서울 전시실로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본 박물관의 경우 주요상설 3개 zone에 대한 선택동선코스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점은 최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2층 전시실의 천창의 위치와 아일랜드 전시부스 및 진열장의 위치가 불일치하여 천창 이용에 의한 효율적인 자연광의 도입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인공조명과 혼용시에도 축과 배열이 부조화를 이룰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14)당초의 건축계획에서는 중정을 중심으로 순회하는 '口'형태의 설계였음

-전시의 레이아웃과 형상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건축구조의 그것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불필요한 dead space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¹⁵⁾나. 세부동선

-로비와 중앙홀의 동선중복을 피하기 위해 1층 우측에서<역사관>이 시작되나 2층의<생활 문화관>으로의 연결이 <역사관> 최단부구석에 신설된 계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관람객에게 순로의 예측-예정된 순로에 대한 인지를 곤란하게 한다.

-박물관의 우측윙은 1,2층 전체가 3스팬의 중복된 격자 공간에 의한 미로형의 전시 순로가 생기게 된다. 또 각 실의 모든 출구가 중앙으로 설정되고 이 들이 내력벽인 까닭에 오히려 동선이 전시의 부스(아일랜드 등)를 우회하여 지그재그식의 동선 발생이 예측된다.

-생활 문화관의 경우, 각 실의 중앙출구를 3개소 이상 폐쇄하고 중앙홀과의 직접적인 진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강제순환식의 미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심리적 포화상태와 위치의 인지가 지극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역사관, 생활문화관의 경우 전시내용의 사적(史的)전개가 통사적, 시간적 순서에 의해 전개되어야 하나, 실제의 동선은 폭 12m 정도의 단위 전시실에 좌우로 배열된 전시내용을 번갈아가며 관람해야하고, 이에 따른 국부적 동선의 혼재가 예상된다

5. 결론

-기존전시계획이 상설전시의 기본단위를 8개의 시대/분류 전시로 구분했던 것에 비해, 최종안에서는 이를 역사관, 생활 문화관, 도시관으로 전시영역화하여 건축의 구성이 취하고있는 3개의 메스 조직권을 전시의틀(frame)로서 선택하여 <통사전시>→<분류/시대 전시>→<도성과 도시사적 조망>의 전개를 이룬 것은 건축의 공간성과 전시연출의 방향성이 통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의 건축계획이 1층의 전시공간은, 리턴형의 구조 / 2층은 연결브릿지에 의한 순환형 구조로 2분화된 점은 결과적으로 전시물 배치와 순로 구성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제별 전시 품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전체규모에 비해 상설전시의 양적인 포화를 이루며, 이는 옥외의 유구 전시장을 관람가능한 시각적장소의 확보와 관람의 심적포화(fatigue)의 해소를 곤란케하므로, 향후의 전시교체에 있어 전시밀도의 차이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설계변경으로 신설된 1,2층 연결계단은 역사관의 최후반부에 설치되어 예정된 순로를 파악하기 용이치 않으므로 주요전시 영역의

15)출입구의 폐쇄, 중 2층의 설치, 아일랜드 전시에 의한 전시실내의 목적지 선 상실 등

<표 7> 전시연출 총괄도(일부)

관명	실명	ITEM 명	전시내용	그래픽 패널	전시 세트	모형	유물	진열장	AV		기타	
									SW	HW		
중앙홀	1-1 로비	1-1-1 박물관 상징물	가. 상설전도(글,그림) 나. 박물관 이미지모음 다. 박물관 안내사인 라. 시수선전도	패1 상설전도 패2 박물관 이미지모음 패3 박물관 안내사인							신수선전도 (조형물:서울 2000)	
		1-1-2 박물관 안내	가. 상설전시안내 (배치도,들어보기,IDS패널) 나. 기획전시 안내 다. 안내데스크 (상설,기획) 라. 휴게코너	패1 상설전시안내 패2 기획전시안내				음1 박물관전시안내 (7개국어) 영1 전시장내부모습 영2 서울탐방 박물관 안내	전시안내음향 (헤드폰5대) CCTV 10.4" (12대) 자료검색시스템 6대		IDS패널(박물관형사안내) 팜플렛배포, 휴게벤치, 전화부스, 안내데스크 (컴퓨터4대), 베너걸이	
	1-1 오리엔테이션 갤러리	1-2-1 서울의 자연환경	가. 서울의 자연환경 -박물관 안내 -서울의 자연환경					영1 박물관 안내 및 서울의 자연환경(3) 나레이션, 음향 자막처리(2D,3D)	LCD프로젝터 1대 스크린(2200*3000) 자향성 스피커(4)		무선마이크, 리모콘 조절 파트션 벤치	
	1-2-2 서주시 연표	가. 서울의 연표 나. 티켓팅시설, 안내원 스테이션 다. 박물관 이미지 그래픽	패1 서울시연표 패2,3 박물관 이미지그래픽 (좌우 2개소)								티켓팅 시설 안내원 스테이션	
역사관	2-1 선사시대 한강 문화	2-1-1 개요	가. 역사관 안내 나. 전시안내 다. 전시개요 라. 선사문화 연표 마. 서울의 선사문화(분포도)	패1 역사관 사인 패2 역사관 종합안내 패3 전시관 안내 패4 전시개요 패5 선사문화 연표 패6 서울의 선사문화 분포도 (벽)								
		2-1-2 구석기시대	가. 구석기시대의 서울 나. 생활도구 다. 관련유물 라. 만져보기	패1 구석기시대의 서울(진) -구석기인의 추정모습 -한강유역의 자연환경과 주거형태 -구석기인의 생활상 -생활도구 (석기의 제작과 사용방법)	전시유물 복제	타제석기 외	진1 2000*900*2490(600)				구석기시대 도구 만져보기	
		2-1-3 신석기시대	가. 신석기 시대의 서울 나. 빗살무늬 토기 다. 암사동, 미사리 유적 라. 관련유물 마. 만져보기	패1 신석기시대의 서울(진) -신석기인의 도구와 경제 활동 :신석기인의 생활성 패2 빗살무늬토기 -제작과 사용 (진) 패3 암사동, 미사리유적 -발굴의 의미	전시유물 복제	빗살무늬 토기 외	진1 2900*900*2490(600) 진2 2000*1200*2490(600) 진3,4 1450*900*1200 (600)(2) 대1 전시대				신석기시대 도구 만져보기	
		2-1-4 선사시대의 한강	가. 선사시대 한강지역 (분포도) 나. 관련 유물	패1 한강지역 선사시대 유적 분포도		석기 외	진1 1450*1450*1200(4)					
		2-1-5 청동기시대	가. 청동기 시대의 서울 나. 청동기시대의 도구의 생산과 발달 다. 유적 라. 관련유물 마. 만져보기	패1 무문토기(진) -한강지역 무문토기와 타지역 비교 패2 청동기시대의 서울(진) -청동기인의 농경 -청동기시대의 도구의 생산과 발달	전시유물 복제	청동기 외	진1 2000*1200*2490(600) 진2 2900*900*2490(600) 대1 전시대					청동기시대 도구 만져보기
		2-1-6 철기시대	가. 철기시대의 서울 나. 관련유물 : 철기, 토기 청동기류	패1 철기시대의 서울(진) -철기문화의 유입과 특징 -마한소국의 태동			철기 외	진1 2000*900*2490(600) 대1 전시대				

전환점으로 기능케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2층 생활문화관은 3점으로 중복된 격자 공간들이 나열되므로 지그재그식의 미로형동선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의 정위(定位)판단이 곤란하므로 단위 전시실 일부를 오리엔테이션 공간(정위공간)¹⁶⁾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상설전시의 규모가 2000평이상의 대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본

16)휴식공간이나 정보탐색 공간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박물관이 강제 순환형식의 단일 동선체계로 이루어진 점은 선택관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또한 선택관람을 행하는 경우의 동선역행을 초래하게 되므로, 차후의 전시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전시의 배치를 달리하여 선택동선의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타, 기존 건축공간의 진출입구가 지나치게 폐쇄되고 전시연출이 부스화, 건축스케일로 공간화 됨에 따라 당초의 건축계획에서 의도된 개념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국부적인 동선의 혼재와 진행 시각

도된 개념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국부적인 동선의 혼재와 진행 시각 동선을 차단하는 점, 천장의 위치와 전시의 배치가 불일치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차후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건축공간과 전시계획 연출의 진행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수행된 정성적(定性的)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연속된 연구로서 건축/전시 물리적 공간구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정량적(定量的)인 방법에 의해 전시 계획의 재정비에 필요한 계획의 기법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음편에 게재 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임채진, 국립충천박물관의 전시기본계획서, 국립중앙박물관, 1996
2. 임채진 외, 민속박물관의 세계, 계몽문화재단, 1994.10
3. 서상우, 임채진 외,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부, 1995. 부록 2
4. 임채진 외, 전시계획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 - 전시방법 및 SHOWCASE 를 중심으로 -, 국영유리공업(주)
5. 임채진 외, MED.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 환경 개발연구원, 1997.12
6. 서상우, 임채진 외, 정보통신박물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정보통신부, 1995.9
7. 서상우, 임채진 외, 국립자연사박물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문화체육부, 1996.11
8. 서상우, 임채진 외,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1997
9. 박물관 건축과 환경, 국립중앙박물관, 1995.10
10. 임채진, 신미경, 박물관의 순회형식과 관람동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5호, 1995.5
11. 임채진, 이정미, 전시공간의 이동체험을 통한 움직임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5호, 1995.5
12. 임채진, 오선애, Museografia를 이용한 조각 전시 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5호, 1995.5
13. 임채진, 차소란, 시동선 환경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9
14. 임채진, 김중훈, 이공계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0호, 1997.3
15. 임채진, 전혜선, 박물관 환경디자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1),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2호, 1997.9
16. 임채진, 정운화, 박물관 환경디자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2),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12
17. 임채진, 하미정, 단위전시공간의 단면형태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5호, 1998.9
18. 임채진, 한선영, 박물관 관람자의 동선 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호, 1999.1
19. 임채진, 임경부, 사이버 뮤지엄의 형식과 구성에 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호, 1999.1
20. 임채진, 박종래, 전시동선의 이동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호, 1998.12
21. 임채진, 최준희, 박물관의 건축규모 지표에 관한 기초적고찰, 한국박물관건축학회지 제1호, 1998.11
22. 임채진, 박찬일, 일본 지역박물관건축의 운영과 성격에 관한 조사, 한국박물관학회지 제1호, 1998.11
23. 임채진, 정성욱, 미술관 관람동선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박물관학회지 제1호, 1998.11
24. 임채진, 김기연, 현대 미술관건축에 나타난 미니멀적 표현경향에 관한 고찰, 한국박물관학회지 제1호, 1998.11
25. 임채진, 하미정, 전시실 단면구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학회지 제1호, 1998.11

26. 임채진, 이종숙, 전시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전시디자인의 구성방법, 한국박물관학회지 제1호, 1998.11
27. 임채진, 미술관 전시부분의 건축계획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일본국립쓰쿠바대학 박사논문, 1992
28. 임채진, 미술관의 전시, 수장부분의 건축계획적 연구, 일본국립쓰쿠바대학 석사논문, 1989. 3
29. 임채진 외, 博物館における資料の收藏 展示密度に關する基礎調査,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88
30. 임채진 외, 展示狀況からみに美術館の性格把握についての考察, 日本建築學會關東支部研究報告集, 1988
31. 임채진 외, 展覽會の運營方式からみに美術館の性格把握,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89
32. 임채진 외, 展覽會の運營方式構成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90
33. 임채진 외, 美術館における展示方式の構成とその特性,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 421號, 1991
34. 임채진 외, 展示方式による美術館の類型化とその展示手法,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 430號, 1991
35. 임채진 외, 美術館における展示部門の展示計劃に關する基礎的研究, 日本筑波大學藝術學研究科, 1991.11
36. R.S.マイルズ 외, 展示デザインの原理, 1986
37. 서울시립박물관(가칭) 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995.12
38. 서울시립박물관 실시설계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1998.10

<접수 : 1999. 8. 5>